

## News

### 은행, 연 1000억 출연하라...서민금융법 여야 합의

머니투데이

코로나19 등으로 사회적 고충 부담 논의가 확산되며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통과시 서민금융상품 재원 위해 연 1000억 수준의 돈 지불 민간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잔액의 약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은행권 1050억원, 여전업권 189억원, 보험업권 168억원 등 금융권 매년 약 2000억원 이상의 출연 의무 발생

### 5대 지방은행, '중금리 대출' 늘었다... "틈새시장 공략"

머니S

지난달 말 DGB대구·BNK부산·BNK경남·JB광주·JB전북 지방은행 5곳의 신용대출 취급액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27.52%로 전월대비 3.66%p, 전년 동월 대비 8.14%p 상승 지방은행이 중금리 대출 취급을 늘리는 이유는 틈새 시장을 찾기 위해서다.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등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 금융사,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소비자 정보 확인 의무 부과

디지털타임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시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하위규정 제정이 모두 완료됐다. 오는 25일부터 금융사는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펀드 카탈로그 등을 통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다면,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했다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 오늘 우리·신한銀 2차 제재심... "피해 구제 노력 인정받나"

아시아경제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금일(3월 18일) 제개.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기관경고를, 손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 자사주 2000주 매입...책임경영 강화

한국경제

전영목 삼성생명 사장은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경영 강화 실현. 3월 17일 전 사장이 전날 보통주 2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 취득 단가 78,000원, 총액 1억5600만원 이번 자사주 매입에 따라 전 사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총 8000주로 늘어났다. 앞서 전 사장은 삼성생명 대표이사로 선임된 지난해 3월 자사주 6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 삼성화재 대리점 vs 독립대리점... 달아오르는 '보험 전쟁' 승자는?

머니S

삼성화재 등 보험사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앞세워 보험 국내영업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으로 독립보험대리점들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회사형 GA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 캐롯손해보험 퍼마일자동차보험 1년, 정영호 수익내기 자신감 품어

비즈니스포스트

캐롯손해보험에 따르면 적자폭 확대 흐름이 올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퍼마일자동차보험을 판매한 지 1년이 지나 작년 판매돼 달달이 들어오는 보험료 올해 실적에 반영 퍼마일자동차보험은 매달 기본료에 주행거리만큼 후불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특징

### 한화생명, 업계2위 현대해상 이어 1위 삼성화재와 손잡는다

머니S

대형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이 업계 2위 현대해상에 이어 1위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공격적으로 국내 보험시장 확대에 나선다.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까지 판매상품을 늘려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완전히 넘어서겠다는 것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